

구시마 성터(축약판)

구시마 성은 오무라 만으로 뻗어 있는 작은 반도의 멀리까지 내려다보이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곳은 16 세기부터 19 세기까지 오무라 가문의 거처였습니다.

구시마 성은 1599 년에 근대 초기 오무라번의 초대 번주인 오무라 요시아키(1569~1616)의 명으로 세워졌습니다. 관백(関白, 천황의 보좌관)이자 훗날 일본의 사실상 통치자가 된 도요토미 히데요시(1537~1598)로부터 요시아키는 1587 년에 있었던 히데요시의 규슈 정벌을 지원했다고 하여 작위를 받았습니다. 히데요시가 사망하자 요시아키는 라이벌인 도요토미 가문과 도쿠가와 가문 간의 권력 다툼이 벌어질 것을 예상하고 오무라 가문의 지배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했습니다. 요시아키는 오무라 만에 구시마 성을 건설할 것을 명했고, 1599 년에 성이 완공되자 일족을 내륙의 작은 성에서 더 요새화된 이곳으로 이동시켰습니다.

구시마 성은 바다로 이어지는 연속된 해자에 의해 보호받았으며, 돌로 된 큰 벽과 나무로 된 망루가 있었습니다. 번주는 구시마 성의 가장 안쪽에 성벽으로 둘러싸인 곳의 단층 저택에서 살았습니다.

구시마 성의 건물군은 오무라 가문 제 2 대 번주인 스미요리(1592~1619)에 의해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스미요리는 1607 년에 노련한 쇼군인 가토 기요마사(1562~1611)의 조언을 받아 구시마 성을 확장하고 방위를 강화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기요마사는 난공불락으로 알려진 구마모토 성의 설계를 감독했는데, 구마모토 성은 1877 년에 약 2 개월에 걸친 포위 공격에도 견뎌냈습니다.

구시마 성은 도쿠가와 막부의 통치가 1867 년에 끝나고 성이 명도된 후 역할을 다하는 1871 년까지 오무라 가문의 거처로 사용되었습니다. 오무라 신사는 오무라 가문의 조상들을 대대로 모시기 위해 1884 년에 내륙 부지에서 구시마 성의 안쪽으로 이전되었습니다. 성벽과 해자는 현재 오무라 공원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또한, 공원의 남쪽에는 모의 망루가 건설되었으며, 이는 구시마 성의 상징이 되었습니다.